

# 조선후기 국가 제사와 제주도 흑우(黑牛)의 진상

---

이옥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연구원, 한국종교사 전공

leewk@aks.ac.kr

---

- I. 머리말
  - II. 희생제의 국가제사와 흑우
  - III. 흑우 진공(進貢) 수효의 증가
  - IV. 흑우의 목양(牧養)과 수송
  - V. 우역(牛疫)의 성행과 대응
  - VI. 제향의 공급
  - VII. 맺음말
- 

이 논문은 2019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 기초 및 중점연구 공동연구과제로 수행된 연구임(AKSR2019-C08).

## I. 머리말

---

본 연구는 조선시대 제주도의 사회 문화를 중앙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지역사에 대한 연구는 조선시대 및 현재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이념과 정치를 떠나 당대인의 현실적 삶이 지역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사는 중앙과 전체의 거시적인 틀에서 조망할 수 있을 때 시대적 의미가 온전히 드러날 것이다. 본 연구는 국가 사전(祀典)이란 제도 내에서 중앙과 지방의 상호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이것은 조선후기 제주 문화를 고립된 상황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교섭과 갈등 속에서 형성되는 유기체임을 밝히는 것이다.

조선시대 국가 제사는 중앙과 지방의 상호 연관 속에서 거행되었다. 중앙 정부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악(嶽)·해(海)·독(瀆)과 명산(名山)·대천(大川)의 제사를 지냈다. 이때 향(香)과 축문(祝文)은 중앙에서 내려 보내고 제관(祭官)과 제물(祭物)은 해당 지역에서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제주도의 한라산은 조선후기 숙종대에 이르러 명산대천에 등재되었다. 이와 더불어 제주도에선 타 지역과 달리 풍운뢰우신(風雲雷雨神)의 제사를 허락하였다. 한편, 제주도에서는 국가 제사에 가장 중요한 희생으로 사용될 흑우(黑牛)를 매년 공급하였다. 또한 종묘 천신(薦新)에 소용되는 감귤 또한 제주도에선 진상하였다. 그러므로 조선시대 국가 제향은 중앙 정부와 제주도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고리였다. 이러한 여러 요소 중에서 본 연구는 조선시대 국가 제사에 희생으로 사용된 흑우의 공급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주도 흑우에 대한 관심은 제주도 목장에 관한 연구의 일부분으로

시작되었다.<sup>1</sup> 또 한편 조선시대 제주도 진상품의 연구에서 흑우를 고찰한 경우도 있다.<sup>2</sup> 이러한 연구의 주요 관심은 마장(馬場)이나 공마(貢馬)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흑우에 대한 언급은 매우 피상적이었다. 제주도의 목장 운영이나 진상의 규모로 볼 때 말에 비해 흑우의 규모는 작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 경향은 당연하다. 반면 흑우를 국가 제향과 연관시킨 연구는 ‘희생’의 범주에서 이루어졌다. 『이재난고(頤齋亂藁)』에 나오는 전생서(典牲罫)나 종묘 제향과 연관된 연구가 있다.<sup>3</sup> 최근에 조선시대 국가 제사에 사용되는 희생을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 한형주의 연구도 있다.<sup>4</sup> 조선시대 국가 제사에 사용된 소, 양, 돼지의 세 가지 희생에 대한 개괄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면서 ‘흑우’에 한정하여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조선후기 흑우 진상의 수효와 그 변화를 고찰할 것이다. 조선후기 줄어드는 다른 진상품과 달리 계속 증가하는 흑우 진상의 수효를 파악하고 그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두 번째는 제주도 흑우가 제주도를 떠나 한양까지 이송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제주도에서 출송(出送) 시기와 호서(湖西)의 분양지(分養地), 그리고 한양의 전생서 등에서 흑우 모습을 알아본다. 나아가 이러한 이송과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친 조선후기 우역(牛疫) 발생과 그에 대한 대응을 고찰할 것이다. 조선후기 현종, 숙종,

- 
- 1 남도영, 「조선시대 제주도 목장: 한국목축업 연구의 일단」, 『한국사연구』 4(1969), 77-131쪽; 김경옥, 「제주목장의 설치와 운영: 耽羅誌를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 문화』 4권 1호(2001), 43-81쪽.
  - 2 허원영, 『19세기 제주도의 호구와 부세운영』,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5); 이옥, 「18세기 제주의 진상제(進上制)와 상품유통」, 『한국사연구』 186(2019), 1-27쪽.
  - 3 노혜경, 「18세기 전생서의 인적 구성과 기능: 황윤석의 『이재난고』를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33(2008), 159-188쪽.
  - 4 한형주, 「조선시대 국가 제사에서의 ‘희생’ 사용과 그 운영」, 『역사민속학』 52(2017), 47-75쪽.

영조 연간에는 연속된 가뭄과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아울러 우역 또한 매우 성하여 제주도에 흑우의 공급 또한 원활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을 대처하는 방안과 그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종묘 제향 속에서 흑우가 희생으로 어떻게 진상되는지를 고찰하면서 논고를 마무리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구조적 접근과 역사적 접근을 동시에 수행할 것이다. 구조적 접근이란 중앙과 제주도의 상관성을 국가 제사의 틀 내에서 살펴보는 것이라면 역사적 접근이란 조선후기 시대적 상황이 이 구조를 어떻게 변형시키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특히 조선시대 국가 사전에 증가하는 내적 모순과 우역 등의 재난이 흑우 진상에 끼친 변화를 고찰하고, 제주도에서 출발하여 종묘의 제상에 희생으로 바쳐지기까지 흑우의 모습을 살펴볼 것이다.

## II. 희생제의 국가 제사와 흑우

종묘를 비롯한 국가 제사는 희생제(犧性祭)라는 특징을 가진다. 희생제란 제사를 위해 일정 기간 양육한 가축을 제삿날에 직면하여 도살해 올리는 제향을 가리킨다. 희생은 일반 제물과 구별된다. 희생은 제사에 임박하여 향소(享所)나 그 주변에서 도축하였다. 그리고 삶거나 익히는 경우도 있지만 날고기를 그대로 바쳐 신이 흠향할 수 있도록 태우거나 땅에 묻었다. 인간과 다른 신의 존재감은 이러한 날고기의 희생을 통해서 구체화되었다. 그리하여 조선시대 국가 제사를 ‘혈식(血食)’이라 하였다. 여기에는 피로 상징되는 생명의 파괴와 이를 통한 신과 인간의 상호 계약이 이루어진다.<sup>5</sup>

5 이옥, 『조선 왕실의 제향 공간: 정제와 속제의 변용』(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표1-대·중·소사의 희생 구분[『국조오례서례』, 「길례」 찬실준뢰도설(饌實尊魯圖說)]

변사	희생 구분		양육 기간
대사	大牢	牛 1, 羊 1, 豕 1	9旬
중사	小牢	羊 1, 豕 1	3旬
소사		豕 1	1旬
祈告			不養

조선시대 국가 제사에 소용되는 희생은 소[牛], 양[羊], 돼지[豕]의 세 종류였다. 이들의 희생 중 소가 가장 귀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그 다음 양과 돼지의 순서로 그 등급이 정해졌다. 그리고 이들 세 가지 희생의 종합을 통해 제향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었다.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에 의하면 대사(大祀)는 태뢰(太牢)로 소, 양, 돼지의 세 가지를 모두 갖춘 제사이고, 중사(中祀)는 양과 돼지를 바치는 소뢰(小牢)의 제사였다. 마지막 소사(小祀)는 돼지 한 가지의 희생만을 사용하였다.<sup>6</sup>

그러나 대사와 중사의 등급이 태뢰, 소뢰의 구분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우선 성균관 문묘의 석전(釋奠)이 중사이지만 태뢰의 희생을 사용하였다. 이는 문묘의 주향인 문선왕 공자의 지위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중사인 선농제(先農祭)는 희생으로 양과 돼지를 사용하지만 국왕의 친행일 경우 여기에 소를 더하였다. 이는 주제자(主祭者)의 지위에 따라 희생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석전제의 경우에도 주현(州縣)의 향교에는 소를 희생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한편, 대사의 제사에 사용되는 소가 흑우였다는 점이 독특하다. 종묘와 사직의 제향에 모두 흑우를 사용하였다. 문묘 석전과 조선후기 대보단에는 황우(黃牛)를 사용하였지만 이는 흑우의 소비 수량에 비해 적은 수였다. 희생으로 흑우를 사용하는 것은 유교 경전이나 중국 사례를 볼 때 흔한

2015), 110쪽.

6 『國朝五禮序例』, 「饌實尊魯圖說」.

것이 아니다. 조선시대 문헌에서도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종묘서(宗廟書)에서 편찬한 『매사문(每事文)』에는 이를 두 가지로 추정하였다. 그 하나는 흑우가 붉은 소의 대용이라는 주장이다. 『주례(周禮)』 「목인(牧人)」에서 양사(陽祀)인 종묘에는 붉은 소(騂)를 사용하고 음사인 사직에서는 검푸른 소(黝)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에서도 종묘에 붉은 소를 사용해야 하지만 천자의 예를 함부로 사용한다는 혐의가 있어 검은 소로 대신하였다는 것이다. 또 다른 주장은 청우(靑牛)의 대용이다. 이에 의하면 동방이 목(木)이므로 조선은 마땅히 청우(靑牛)를 사용해야 되지만 세상에 청우가 없으므로 검은 소로 대신하였다는 것이다.<sup>7</sup> 이러한 주장은 추정일 뿐이지만 이로 인하여 조선시대에 흑우는 농우(農牛)로 사용되지 않고 국가 제향의 희생으로 전용되었다.

조선전기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에 실린 희생의 수로써 1년 제향에서 소용되는 소의 수를 가늠하면 최대 13마리이며 이 중에서 흑우의 수는 최대 11마리이다. 대사인 사직, 종묘, 영녕전에는 한 번의 제사에 각각 흑우 한 마리씩 들었다. 이들 제사의 흑우 소용은 친행과 섭행 관계없이 모두 소 한 마리를 잡았다. 친행이란 국왕이 초헌관으로 참여하는 제사인 반면 섭행은 신하가 왕을 대신하는 것이다. 중사인 문선왕에 대한 제사도

표2- 국가 제향에 소용되는 소의 수량(『국조오례서례』)

제향	1회 수량	횟수	1년 수량	참조
사직	1마리	3회(春·秋·臘)	3마리	흑우
종묘	1마리	5회(四時·臘)	5마리	흑우
영녕전	1마리	2회(春·秋)	2마리	흑우
선농제	1마리	1회(驚蟄 後 亥日)	1마리	흑우(친향시)
문선왕	1마리	2회(春·秋)	2마리	황우
총계			11+2	흑우+황우

7 『每事問』(장서각소장, K2-2161), 「儀註問答」.

소를 희생으로 올리지만 흑우가 아닌 성우(騁牛)였다. 성우는 붉은 색의 소를 가리키는데 조선에서는 황우로 대신하였다. 기타 중사에는 소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선농제의 경우 친행이면 소를 추가로 올렸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국왕이 선농제를 친행한 경우는 드물지만 왕의 친행으로 가정하면 1년에 소용되는 흑우의 수는 최대 11마리가 된다. 사직에 3마리, 종묘에 5마리, 영녕전에 2마리, 선농에 1마리가 들어가는 것이다.<sup>8</sup>

### Ⅲ. 흑우 진공(進貢) 수요의 증가

1652년(효종 3)에 편찬된 제주도 최초 지리지인 『탐라지(耽羅誌)』에 의하면 제주에서 진상하는 흑우의 수는 애초 15마리였는데 당시 5마리를 더하여 20마리가 되었다.<sup>9</sup> 이후 이 숫자는 계속 증가하였다. 정조대 전생서(典牲署) 주부(主簿)를 지낸 황윤석은 『이재난고(頤齋亂藁)』에서 흑우의 원정(元定)이 20마리였는데 1737(영조 13)에 10마리, 1778(정조 2)에 10수를 늘여 제주도에 부가하였다고 하였다.<sup>10</sup> 그리고 이보다 앞서 1681(숙종 7)에 흑우 5마리를 거제도에서 진상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정조대 국가 제향을 위해 준비하는 흑우는 총 45마리로 늘어났으며, 그 중에서 40마리는 제주도, 5마리는 거제도에서 공급하였다. 이후에도 제주도에 진상하는 흑우의 수는 계속 증가하였다. 1853년(철종 4) 제주도의 제주목, 대정현, 정의현 세 곳의

8 『국조오례서례』에는 나오지 않지만 원묘인 문소전(文昭殿)의 제향 중 국왕이 친행하는 별제에 황우 2마리가 소용되었다(한형주(2017), 앞의 논문, 61쪽). 그러나 문소전 제향이 희생을 사용하지 않는 속제이므로 여기에서는 제외하였다. 황우 2마리는 희생이 아니라 육선(肉膳) 요리에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한다.

9 『耽羅誌』(규장각 소장, 고 4798-1) 「濟州, 牧養, 牛屯」.

10 黃胤錫, 『頤齋亂藁』 38책, 병오 5월 2일(갑진).

표3- 제주 흑우 진공의 수량

연도	제주	거제	출처
1652(효종 3)	20	-	『탐라지』
1681(숙종 7)	20	5	『이재난고』
1737(영조 13)	30	5	『이재난고』
1778(정조 2)	40	5	『이재난고』
1853(철종 4)	42[제주20, 대정8, 정의14]	미상	『濟州三邑上錢穀會計成冊』(규20359)
1861(철종 12)	42[제주20, 대정8, 정의14]	미상	『濟州三邑上錢穀會計成冊』(규19381, 6-1)
1867(고종 4)	47[제주22, 대정10, 정의15]	미상	『濟州三邑上錢穀會計成冊』(규19381, 6-5)
1894(고종 31)	47	미상	『開國503年12月日 本營及3邑進上所封物種數文成冊』(규16781)
1906(광무 10)	49	미상	『통첩편안 1호』(규20313)

『전곡회계성책(錢穀會計成冊)』에 의하면 진상 흑우의 수는 제주 20마리, 대정현 8마리, 정의현 14마리로 나눠서 준비하여 전체 42마리가 되었다.<sup>11</sup> 그리고 1867년(고종 4)에는 제주도 전체 흑우수가 47마리로 증가하였다.<sup>12</sup> 마지막 대한제국기의 『통첩편안(通牒編案)』(1호)에 의하면 제주도에서 올라 오는 흑우의 수가 49마리에 이르렀다.<sup>13</sup> 이렇게 흑우의 수가 늘어나는 요인은 무엇일까?

### 1. 종묘 신실의 증가

흑우의 최대 소비처는 종묘였다. 『국조오례서례』에 의하면 대사인 종묘와 사직에서 한 번 제향을 거행할 때 사용하는 흑우의 수는 동일하게

11 『濟州三邑上錢穀會計成冊』(규장각 소장, 규20359).

12 『濟州三邑上錢穀會計成冊』(규장각 소장, 규19381, 6-5); 『訓令存案』(규19144), 「光武 8年 7月 訓令 黑牛督納事 3號」.

13 『通牒編案(1號)』(규장각 소장, 규20313), 「照會」(광무10년 6월 28일).



1마리이다. 그러나 일 년에 3번 지내는 사직에 비해 일 년에 5번의 제향을 거행하는 종묘가 더 많은 흑우를 필요로 하였다. 그런데 1년의 거행 횟수만이 아니라 종묘는 시간이 갈수록 제사 대상이 늘어나는 독특한 구조를 가졌다. 사직은 국사(國社)와 국직(國稷)의 신을 주향으로 하고 후토(后土)와 후직(后稷)을 배향으로 하여 전체 4위를 모셨다. 이에 비해 종묘는 최소 5위를 시작으로 계속 증가하였다. 물론 제사 대상이 곧바로 희생의 증가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종묘제향은 소, 양, 돼지를 희생으로 사용하는데 왕의 친향 때면 양과 돼지를 각 실마다 한 마리씩 올렸다. 하지만 소는 각실마다 한 마리씩 사용하지 못하고 희생을 해체하여 나누어 올렸다. 종묘 정전에 10위의 선왕 신주가 봉안되었던 선조대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한 번의 제향에 소 1마리가 사용되었다.<sup>14</sup> 소 한 마리를 잡아서 머리와 4개의 다리와 어깨[肩], 갈비[胸] 등으로 나누어 올린 것이다. 성종대 초기까지 소의 머리와 등골[膞]은 제상에 올리지 않았다. 그러나 1476년(성종 7)에 경전과 중국 전례를 참조하여 희생의 머리를 태조실에 올렸다.<sup>15</sup> 그리하여 종묘에 10위의 왕을 모시던 선조대에도 흑우는 1마리를 사용하였는데 제1실에서 제5실까지는 머리와 4개의 다리를 각각 올리고 나머지 6실부터는 어깨[肩], 갈비, 등심을 조각조각 잘라 올렸다. 그런데 이항복이 흑우 2마리를 잡아 머리 둘과 다리 여덟 개를 10실에 나누어 올리자고 건의하여 실행되었다.<sup>16</sup> 결국 선조대에 이르러 종묘제향 때 흑우의 소비가 한 마리 더 늘었다.

한편, 효종가 즉위하여 인조를 종묘에 부모함으로써 종묘 정전에 11위의

14 선조대 종묘 정전의 신위 봉안 현황은 다음과 같다.

1실	2실	3실	4실	5실	6실	7실	8실	9실	10실	11실
태조	태종	세종	세조	덕종	예종	성종	중종	인종	명종	

15 『성종실록』 성종 7년 1월 8일(계축).

16 『宗廟儀軌』(규장각 소장, 규14220), 「犧牲饌品」.

신위<sup>17</sup>가 모셔졌고 영녕전에 8위가 봉안되었다.<sup>18</sup> 그 이전 종묘 10위가 있을 때에는 흑우 2마리로 5등분 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영녕전에 8위가 있었지만 2마리를 사용하지 않고 1마리로 충당하였다. 머리와 네 다리를 5위에 각각 올리고 나머지 3위는 갈비를 나누어 진설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종묘 정전에 1위가 늘어나면서 1마리를 더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 추가된 한 마리의 머리와 네 다리 중에서 한 가지를 종묘 제11실에 올리고 나면 남은 것으로 영녕전에 사용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효종대에 한 번의 종묘 제향에 3마리의 소가 소용되었다. 영녕전과 같이 지내는 춘향, 추향 때에는 두 곳에 합쳐 소 4마리가 소용되었다. 반면 영녕전에 제향이 없는 하향(夏享), 동향(冬享), 납향(臘享)에도 3마리를 사용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종묘 1년 제향에 소용되는 흑우의 수는 17마리가 되었다. 이는 15마리로 한정되었던 제주도 흑우의 수보다 더 많은 것이었다. 『탐라지』에서 언급하였던 효종대 15마리에서 5마리를 더하여 20마리가 되었다는 것은 이러한 사정에 따른 결과였다.

숙종이 즉위하여 현종의 신위를 종묘에 봉안함으로써 흑우가 더 필요하였다. 이전에 종묘와 사직에 1년 사용되는 흑우의 수가 17수였는데<sup>19</sup> 이제 22수가 된 것이다. 여기서 잠시 숙종대 초기 종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당시 종묘 정전에는 제1실부터 태조, 태종, 세종, 세조, 성종, 중종,

17 효종대 종묘 봉안 현황은 다음과 같다.

1실	2실	3실	4실	5실	6실	7실	8실	9실	10실	11실
태조	태종	세종	세조	성종	중종	인종	명종	선조	원종	인조

18 효종대 영녕전 신위 봉안 현황은 다음과 같다.

서협실			정전				동협실		
5실	6실	7실	1실	2실	3실	4실	8실	9실	10실
공정왕	문종		목조	익조	도조	환조	덕종	예종	

19 현종대에는 종묘에 10위, 영녕전에 10위가 봉안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1년에 종묘에 소용되는 흑우의 수는 14마리이며, 사직의 제향까지 합치면 전체 17마리이다.

선조, 원종, 인조, 효종, 현종 등 11위가 있었다.<sup>20</sup> 이 중에서 태조에서 선조까지가 세실(世室)이고 원종에서 현종까지가 숙종에게 4대에 해당한다. 소 한 마리를 5체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면 11위를 위해서는 3마리의 소가 필요하다. 이에 1년이면 15마리의 소가 소용된다. 반면 영녕전에는 목조 이하 명종까지 10위가 있었다.<sup>21</sup> 그러므로 2마리의 소가 매년 제향 때 소용되고, 1년이면 4마리의 소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종묘에 1년 동안 소용되는 소의 수는 19마리가 된다. 여기에 사직의 3마리를 합치면 숙종대 한 해에 소용되는 흑우의 수는 22마리가 되었다. 이에 예조에서는 원공 20수에 5수를 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당시 제주도에서는 국둔(國屯)에서 기를 수 있는 흑우의 수가 이미 다하여 매년 사둔(私屯)에서 기른 흑우를 국둔의 잡색우(雜色牛)와 교환하여 올리는 지경이었다. 그리하여 나라에서는 흑우 5마리를 제주도가 아닌 거제 칠천도(漆川島)에서 바치도록 하였다.<sup>22</sup>

거제도 칠천도에서 흑우를 목양하기 시작한 시기는 1664년(현종 5)까지 올라간다. 그때에 제주도의 원공을 감해주기 위하여 흑우 5마리를 칠천도로 옮겨 봉진하게 하였다. 그러나 1673년(현종 14)에 우역이 크게 발생하여 공급이 어렵게 되자 5마리를 다시 제주도로 부쳤다. 하지만 1679년(숙종 5)에 다시 거제도에 이전 우역에서 살아남은 소들의 종자가 있을 것이라 하여 5마리를 봉진토록 한 것이었다.

20 1676년(숙종 2) 종묘 정전 신위 봉안 현황은 다음과 같다.

실	1실	2실	3실	4실	5실	6실	7실	8실	9실	10실	11실
왕	태조	태종	세종	세조	성종	중종	선조	원종	인조	효종	현종
흑우	頭	頭	後脚	後脚	後脚	後脚	後脚	前脚	前脚	前脚	前脚

21 1676년(숙종 2) 영녕전 신위 봉안 현황은 다음과 같다.

서협실				정전				동협실			
5실	6실	7실	8실	1실	2실	3실	4실	9실	10실	11실	12실
공정왕	문종	덕종	예종	목조	익조	도조	환조	인종	명종		

22 『祭膳錄』(장서각 소장, K2-2459), 기미년(1679, 숙종 5) 6월 4일.

이렇게 조선시대 종묘는 시간이 지날수록 제사 대상이 늘어났고, 이것이 희생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조선의 종묘는 제후국에 맞추어 오묘제(五廟制)를 표방하였다. 이는 태조의 불천위와 현왕의 4대를 모시는 방식이다. 그러므로 4대가 지난 왕들은 그 제사를 폐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종묘에서 제향이 끝나는 신위를 매안하지 않고 영녕전에 별도로 보관하면서 제향을 유지하였다. 비록 1년에 5번에서 2번으로 줄어들었지만 영녕전의 제향 역시 신위가 많아짐에 따라 흑우의 수가 더 필요하였다. 그뿐 아니라 종묘 정전에서 4대가 지나도 신위를 옮기지 않는 불천위(不遷位)의 세실(世室)이 늘어나면서 종묘의 신실은 급속히 증가하였다. 숙종대 보이는 태종, 세종, 세조, 성종, 중종, 선조는 모두 세실이었다. 그리고 이후 인조, 효종, 현종, 숙종, 영조, 정조 등 계속해서 세실이 증가하면서 흑우의 수요를 급격히 증대시켰다.

한편, 정조대 경모궁(景慕宮)의 건립 역시 흑우의 수요를 증가시켰다. 정조가 즉위한 후 영조와 추존왕 진종(眞宗)이 종묘에 부모됨으로써 종묘 정전에는 전체 14위의 선왕이 모셔졌다. 정조에게 5대에 해당되는 효종은 불천위가 되어 정전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이렇게 되면 한 번의 제향에 여전히 3마리의 소가 필요하다. 그런데 정조는 종묘와 별개로 생부(父生) 사도세자의 사당인 수은묘(垂恩廟)를 경모궁으로 고치고, 그 제향의 희생으로 소를 사용하였다.<sup>23</sup> 경모궁은 중사(中祀)이지만 왕의 친행일 때 대사(大祀)로 간주되었다. 그런데 희생의 사용을 살펴보면 친행에 소, 양, 돼지, 섭행에 소와 양을 사용하였다.<sup>24</sup> 즉, 친행과 섭행 모두 소를 희생으로 사용한 것이다. 경모궁 역시 사시제와 납향을 거행하였으므로 1년에 5마리가 추가된 셈이다. 한편 영녕전에는 목조로부터 원종까지 12위의 선왕을 모셨으므로 한

23 『승정원일기』 정조 2년 5월 29일(무자).

24 『景慕宮儀軌』 卷2, 祀典, 祭享式例.

번의 제향에 3마리가 필요하였고, 1년이면 6마리가 소용되었다. 그리하여 종묘와 경모궁의 제향에 소용되는 1년의 흑우수는 전체 26마리가 되었으며 숙종대 19마리에 비하면 7마리나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종묘 제향에 필요한 흑우의 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제주도에서 진상하는 흑우의 수 역시 증가하였다.

## 2. 친행 기우제의 증가

1737년(영조13) 윤9월 6일에 행사직(行司直) 이종성(李宗城)은 다음과 같이 임금께 아뢰었다.

제향에 소용되는 전생서 흑우의 원공은 25마리입니다. 그런데 1년 제향으로 진배한 것이 24마리나 되어 남은 것이 단지 1마리뿐입니다. 만약 친향을 한다면 추가로 진배해야 할 것이 3마리나 됩니다. 성상께서 매년 친향하시고 또 연이어 기우제를 직접 거행하셨기 때문에 남아있던 흑우가 지금 이미 다하였습니다. 만약 별제(別祭)가 있게 된다면 반드시 사달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하여 변통해야 함을 묘당(廟堂)에 보고하여 제주에 10마리를 추가할 것을 청하였습니다.<sup>25</sup>

인용문에서 이종성은 당시 1년 제향에 소용되는 흑우의 수가 24마리라고 하였다. 이는 원공 25마리에 비하면 1마리의 여유가 있다. 그러나 영조가 연이어 기우제를 친행(親行)하였기에 흑우를 다 사용하였다고 한다. 당시가 윤9월이므로 동향과 납향의 제향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원공의 수를 다 소진하였으므로 부족의 상태가 심각하였다. 여기서 종묘 신실의 증가와

25 『승정원일기』 영조 13년 윤 9월 6일(신유).

무관한 또 다른 변수를 찾을 수 있다.

조선초기 『국조오례의』에 기재된 의주를 보면 종묘와 사직의 대사와 석전과 선농제 외에는 국왕의 친행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조선후기에는 중사인 풍운뇌우단(風雲雷雨壇; 남단), 북단(北壇), 우사단(雩祀壇) 등에서 국왕의 친행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러한 친행의 제사는 모두 기우(祈雨)를 위한 것이었다. 1527년(중종 22) 사직과 종묘에서 시작한 친행기우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직과 종묘 외 이들 단으로 확대되었다. 1537년(중종 32) 4월에 왕은 남교(南郊)의 '풍운뇌우단'에서 친행기우제를 설행하였다. 숙종은 기우를 위해 처음으로 선농단에 나아갔으며, 영조는 국왕으로는 처음으로 북교에 기우제를 거행하였다. 영조는 어느 왕보다 친행 기우제를 많이 거행하였다. 기우제는 대부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올 때까지 여러 곳에서 거행하였다. 표4에서 보이는 것처럼 영조는 사직이나 종묘에서 시작하여 북교, 남단, 우사단에 기우를 위해 나아갔다.<sup>26</sup> 이렇게 국왕이

표4- 영조대 친행기우 제장

년 월	제 장
1725(영조1). 7.	사직단 → 북교
1727(영조3). 7.	종묘 → 사직단
1731(영조7). 5.	사직단 → 북교 → 남단
1732(영조8). 6.	사직단 → 선농단 → 북교 → 사직단
1734(영조10). 7.	사직단 → 종묘
1739(영조15). 5.	사직단 → 우사단
1743(영조19). 윤4.	종묘 → 사직단 → 북교
1753(영조29). 5.	북교 → 선농단 → 사직 → 우사단 → 남단
1760(영조36). 5.	종묘 → 남단 → 사직단
1762(영조38). 6.	우사단 → 사직단 → 종묘
1764(영조40). 5.	남단 → 사직단 → 북교 → 종묘 → 선농단 → 남단

26 이육, 『조선시대 재난과 국가의례』(창비, 2009), 211쪽.

친행으로 기우제를 거행하면 그 제향의 희생으로 흑우를 사용하였다.

정조대 편찬된 『탁지지(度支志)』에 의하면 북교의 친행 기우제에 소용되는 흑우의 수는 3마리이고, 우사단(雩祀壇)에는 흑우 2마리가 소용되었다. 북교는 전국의 주요 산천인 악해독과 명산대천의 신위를 모시고 지내는 망제(望祭)이다. 여기에는 중사에 해당하는 악해독만 하더라도 13위가 되었다. 반면 우사단은 구망, 축융, 옥수, 현명, 후토, 후직 등 6신위를 모신 곳이다. 이러한 곳들에서 거행되는 기우제는 흑우의 수를 급격히 증가시켰다. 물론 종묘와 사직의 기우제에도 흑우는 필요한데 종묘에 4마리, 사직에 1마리가 들었다.<sup>27</sup> 1737년(영조 13)의 흑우의 진상 수를 10마리나 더 늘인 것은 이러한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아울러 조선후기 연이은 가뭄과 농경의 어려움은 사직의 제향을 증가시켰다. 1783년(숙종 9)에 사직에서 기곡제(祈穀祭)를 거행하였다. 이 기곡제는 한 해의 농사가 잘 되길 비는 제사이다. 고려시대나 조선 초기 기곡제는 원단(圓壇)에서 거행하는 제천의례였다. 그런데 조선시대 제천(祭天) 의식이 제후국에게 맞지 않다고 폐지되면서 기곡제가 사라졌다. 그런데 조선시대 현종, 숙종연간 연이은 가뭄과 흉년 속에서 기곡제가 다시 부활하였다. 다만 제향 공간이 원단에서 사직단으로 바뀌었다. 1696년(숙종 22)에 국왕은 사직단에 나아가 기곡제를 친행으로 거행하였다. 그리고 1697년(숙종 23)부터 사직 기곡제는 매달 정월에 거행하는 정기적인 제향이 되었다. 영조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기곡제는 기고제(祈告祭)의 수준이었고, 국왕이 친행할 때 대사로 규정되었다. 그러다가 1787년(정조 11)부터 친행과 섭행의 기곡제 모두를 대사(大祀)로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기곡제에도 태뢰의 희생을 사용하였다.<sup>28</sup> 그러므로 사직에서는 1년에 4번의 제향을 위해 4마리

27 黃胤錫, 『願齋亂藁』 38책, 병오 5월 2일(갑진) 「牛羊家別用例」.

28 이육(2009), 앞의 책, 290쪽.

의 흑우가 필요하였다. 조선전기보다 1마리가 더 늘어난 셈이다.

숙종, 영조 연간 계속되는 가뭄은 농업을 망치고 그로 인해 기근을 가져오고 이에 전염병까지도 덮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 이러한 상황에 기우의 열망은 어느 때보다 높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기우제를 위한 제물의 공급, 특히 흑우의 공급은 백성들에게 더욱더 큰 짐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비록 농경을 위한 소는 아니지만 이를 공급하기 위한 수고로움은 백성들에게 돌아갔기 때문이다. 가뭄과 기우는 이러한 모순들 속에서도 멈출 수 없었고, 민고(民苦)는 멀리 떨어진 제주도에게 먼저 부가되었다.

#### IV. 흑우의 목양(牧養)과 수송

##### 1. 제주의 우목장(牛牧場)

숙종대의 이형상(李衡祥, 1653-1733)이 편찬한 『탐라순력도』의 「별방조점(別房操點)」은 제주에서 기르던 흑우의 모습을 보여준다.<sup>29</sup> 제주도 동쪽 편에 있는 '다랑쉬오름(大郎秀岳)〔B〕' 아래로 말들이 달리고, 그 옆에 소떼가 풀을 뜯고 있는 곳에 '흑우둔(黑牛屯)'라는 글이 보인다〔A〕. 이 그림의 아래 설명에 의하면 당시 별방에서 관리하는 흑우의 수는 247마리이다. 그 외 정의현(旌義縣)에서도 흑우 228마리를 사육했으며, 대정현(大靜縣)에서는 228마리를 관리하여 제주도에는 전체 703마리의 소를 길렀다.<sup>30</sup>

29 별방은 제주목에 속한 별방진의 별방성을 가리킨다. 별방성은 돌로 쌓은 성인데 둘레가 2,390자이고, 높이는 7자였다. 1510년(중종 5)에 장림 목사가 왜구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쌓았다.

30 『耽羅巡歷圖』(영인본, 제주시청, 1994), 「旌義操點」, 「大靜操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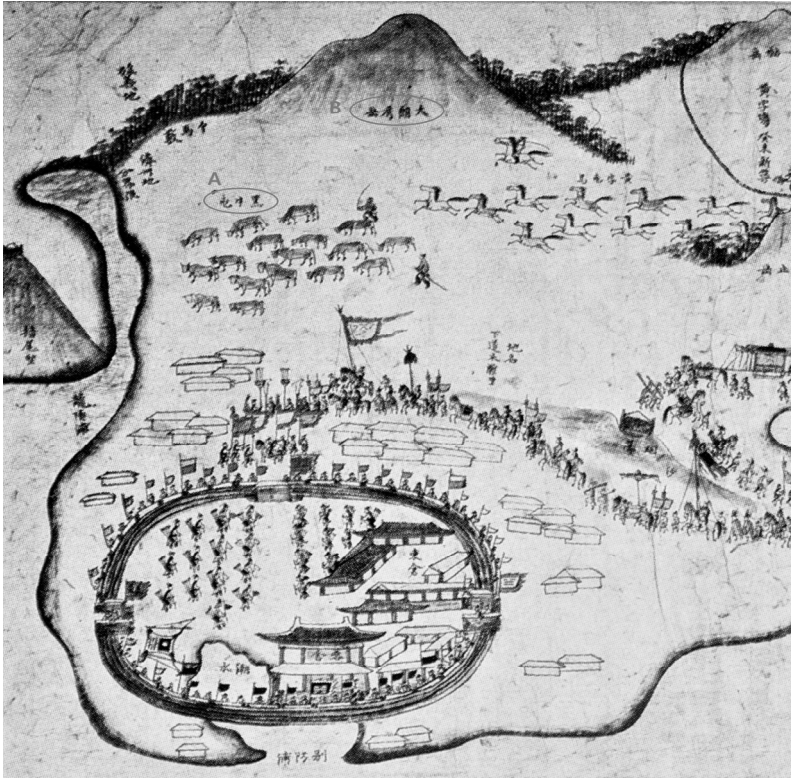


그림1-『탐라순력도』의 「별방조점(別房操點)」(부분), 제주시청

『탐라지』에서 우둔(牛屯)은 제주목에만 나오는데 제주목 동쪽 어등개(魚登浦)에 있었다. 소의 수요는 나오지 않는다. 당시 국둔에는 순흑색의 소는 적었고 잡색 소가 많았다고 한다. 그리하여 국둔의 소만으로는 20마리의 수요를 맞추기 어려워 민가의 소를 택하여 올리고 잡색우를 그들에게 지급해주었다고 한다. 이원진은 이렇게 구차한 상황을 타개하려면 흑우를 무역하여 종자를 번식해야 할 것이라 하였다.<sup>31</sup>

『제주읍지』에 의하면 제주 목장 중에서 흑우를 기르는 곳은 네 군데

31 『耽羅誌』 「濟州, 牧養」(규장각 소장, 고 4798-1).

정도였다. 제주목 일소장(一所場)에 553마리, 육소장(六所場)에 513마리가 있었다.<sup>32</sup> 그리고 대정현(大靜縣)에 속한 모동장(毛洞場)에 둔우(屯牛) 203마리가 있고<sup>33</sup>, 정의현(旌義縣)의 십소장(十所場)에 447마리의 흑우가 있었다.<sup>34</sup> 그 외 『제주대정정의읍지(濟州大靜旌義邑誌)』에 의하면 대정현 가파도에도 둔우 75마리가 있었다고 한다.<sup>35</sup> 그러나 이곳은 1842년(헌종 8)에 백성들이 들어가 경작하는 것을 허락하고 소를 다른 인근 목장으로 옮겼다.<sup>36</sup>

이들 목장에는 소를 대체로 방목하였다. 그러나 초목이 마르는 겨울에는 눈과 비를 피할 수 있는 집을 짓고 풀을 쌓아두어 마른 소들을 가려서 먹이고, 봄에 풀이 무성할 때 또 방목하였다. 목장에는 소들을 관리하는 목자와 이를 감독하는 우감(牛監)이 있었다. 한편, 『제주읍지』에 의하면 제향에 진상하는 흑우의 수는 30마리인데 제주에서 14마리, 대정현에서 6마리, 정의현에서 10마리를 담당하였다. 반면 철종대에는 제주목에 20마리, 대정현에 8마리, 정의현에 14마리였다.<sup>37</sup> 그리고 1867년(고종 4)에는 제주목에 22마리, 대정군 10마리, 정의군 15마리로 증가하였다.<sup>38</sup> 그러므로 대체로 제주목에서 진상의 반 정도를 맡았으며 그 다음으로 정의현이 많고 대정현이 제일 적었다.

32 『濟州邑誌』(규장각 소장, 규10796), 「濟州, 牧場」.

33 『濟州邑誌』(규장각 소장, 규10796), 「大靜縣誌, 牧場」.

34 『濟州邑誌』(규장각 소장, 규10796), 「旌義縣誌, 牧場」.

35 『濟州大靜旌義邑誌』(규장각 소장, 규17436) 大靜縣 牧場, “波島別屯 在縣南海中十五里 屯牛七十五首”

36 『耽羅紀年』, “許民入耕于牛島及加波島 先是放馬于牛島放牛于加波島 以備進貢 至是啓請 并驅出之放于附近牧場 令民入墾納稅于司僕寺”

37 『濟州三邑上錢穀會計成冊』(규장각 소장, 규20359).

38 『濟州三邑上錢穀會計成冊』(규장각 소장, 규19381, 6-5).

## 2. 흑우의 출송(出送)과 분양(分養)

『제주읍지』에 의하면 대정현에서는 매년 10월에 진상할 흑우를 결양(結養)하여 4월에 출송한다고 하였다.<sup>39</sup> 정의현에서도 4월에 영문(營門)에 봉진하다고 하였다. 즉, 제주도에서는 겨울에 봉진할 흑우를 가려서 집중적으로 양육시킨 후 4월에 육지로 보내었다. 제주도의 목양은 방목이 대세이지만 겨울에는 풀이 없고 눈이 많이 내려 소를 내어 기를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겨울 동안은 다른 때보다 우마들의 영양 상태가 좋지 않다. 겨울이 지나 봄에 새로운 풀이 날 때 이를 먹고 우마들은 기력을 되찾았다. 그리하여 제주도에서 우마를 봉진할 때에는 봄에 나는 풀을 먹여 윤택하게 만든 후 초여름에 봉진하였다.<sup>40</sup> 1734년(영조 10) 6월 제주도에서 출송한 배가 사서도(斜鼠島)<sup>41</sup> 바다에서 침몰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때 보고서에 의하면 대개 4월 그믐 전에 도회읍(都會邑)에 흑우를 교부(交付)하는데 이번에 늦어졌다고 하였다.<sup>42</sup> 그러므로 늦어도 4월에 제주도에서 흑우를 출송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흑우의 제주도 출송은 4월에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1848년(헌종 14)에 흑우를 실은 배가 침몰하는 사고가 났다. 이때 보고서를 통해서 당시 출송의 과정을 알 수 있다.

39 『濟州邑誌』(규장각 소장,奎10796), 「대정현지, 목장」. “恩津 所納 祭享黑牛八首每十月 結養四月封 進出送”

40 『제등록』(장서각 소장, K2-2549), 신미년(1691, 숙종 17) 10월 24일.

41 사서도(斜鼠島)는 현재의 지명이 사수도(泗水島)이며 제주도 제주시 추자면에 속한 섬이다.

42 『祭禮臚錄』(장서각 소장, K2-4809), 갑인년(1734, 영조 10) 7월 초4일.

본도 3읍에서 봉진하는 흑우 42마리 중에서 본주(本州) 흑우 20마리를 사공(沙工) 김유선(金有先)의 배에 싣고, 대정현과 정의현 두 읍의 흑우 22마리와 윤4월 월령 진상품, 대왕대비전 탄일 진하 전문(箋文), 삭선(朔膳) 선장(膳狀), 무과초시(武科初試) 시취(試取) 장계(狀啓)를 사공 강진영(姜振永)의 배에 싣었습니다. 이번 달[12월] 11일 해시쫄 두 배가 본주의 화북포(禾北浦)에서 일제히 점고하여 보내었더니, 금23일에 도착한 강진현감의 보고서에 의하면 제주 흑우 진상을 실은 배 한척이 이번 14일 신시쫄 영암군 보길도 앞 바다에서 바람을 만나 침몰하여 진상품과 전문, 흑우 모두 물에 빠져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선주 강진옥, 사공 강진영, 객군 한광철·윤성진·강진복·이명춘, 전문 압령(箋文押領) 김명채, 진상압령 고향명·양계호, 정의현 흑우령색리 이충근, 종인(從人) 최득복·김광룡, 경산도 사상(私商) 전시명, 우수영 사상 김경화 등 14명은 겨우 살았지만 대정현 흑우령색리(黑牛領色吏) 오태주, 우수영 사상 김화서 등 2명은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합니다. 막중한 진상품과 전문을 빠뜨려 잃어버리고, 2명의 사람이 빠져 죽었다고 하니 황송함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sup>43</sup>

위의 기록에 의하면 제주도에서 흑우를 올려보내는 시기가 겨울이다. 한편, 위 인용문에서 흑우 42마리를 두 배로 나누어 태우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주의 흑우를 한 배에 싣고, 대정과 정의현 두 읍의 흑우를 또 다른 한 배에 싣었다. 이들 배는 사공(沙工)과 이를 돕는 격군(格軍)이 조절하였는데 한 배당 그들의 인원이 12명이었다. 그리고 흑우를 몰고 가는 영거색리(領去色吏)가 1배에 3-4명 있었다. 1865년(고종 2)의 사례를 보면 제주 지역 소를 담당하는 영거색리가 3명, 대정현과 정의현 흑우 영거색리가 각각 2명씩 있었다. 이들의 품삯은 1인당 미(米) 1두 5승이었다.

43 『各司膳錄』(규장각 소장, 규 15099) 『濟州啓錄』, (『각사등록19: 전라도편 2』, 국사편찬위원회, 1986), 도광 28년(1848, 현종 14) 12월 26일.

제주도에서 올려보내는 흑우는 태어난 지 3년이 되는 소를 보내는 것이 관례였다. 1684년(숙종 10) 침몰 사건 때 15마리의 흑우 중 5마리만 겨우 살아남았다. 이후 부족한 수량을 채우기 위해서 제주도에서는 공둔과 사둔의 흑우를 살펴보았으나 진상에 적합한 것이 없었다. 이에 부득이하여 그 다음해에 보내기로 되어 있는 2살 되는 소 중에서 조금 좋은 것을 택하여 보냈다.<sup>44</sup>

그런데 이렇게 제주도에서 육지로 보내진 흑우는 곧장 한양으로 가는 것이 아니었다. 육지에 도착한 흑우는 충청도 은진현(恩津縣)으로 옮겨져 그곳에서 호서의 여러 고을에 분양(分養)되었다.<sup>45</sup> 제주목사는 봉진관(封進官)이고 은진현감이 도회관(都會官)으로 책임을 맡았다.<sup>46</sup> 거제도에서 보내는 흑우 5마리는 황간(黃澗)에서 분양되었다. 은진현에 흑우가 도착하여 각읍에 분양하는 시기가 매년 7월이었다.<sup>47</sup> 그러나 이것 역시 제주도의 출송 시기만큼 분양시기도 일률적으로 판단하긴 어렵다.

1696년(숙종 22)에는 제주에서 올라온 20마리가 은진현의 도회소에 도착한 것이 4월경이었다. 그런데 당시 제주 진상 20마리 중에서 이미 병들고 꼴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소들이 많았다. 20마리 중에서 4마리는 정산(定山), 진잠(鎭岑), 전의(全義), 천안(天安)에 각각 1마리씩 분양하였지만 나머지 중에서 10마리가 분양하기 전에 병들어 죽었다.<sup>48</sup> 여기에 나온 정산(定山), 진잠(鎭岑), 전의(全義), 천안 외 흑우를 분양받아 기른 고을로는 예산(禮山)烏

44 『祭禮臚錄』(장서각 소장, K2-2549), 갑자년(1684년, 숙종 10) 2월 13일.

45 『祭禮臚錄』(장서각 소장, K2-4808), 계유년(1693, 숙종 19) 5월 16일.

46 『日省錄』, 정조 3년 기해(1779) 1월 29일(갑인).

47 『鴻山縣誌』進上(『湖西邑誌』규장각 소장, 규10767). “一濟州出來黑牛 每年七月自都會恩津縣受來 官奴中從次第喂養 隨年條知委閱上納 而夫刷錢中負持二兩 書負廳錢一兩 奴房助糧 糶錢中五兩式上下 以助情費不足之數 該官奴擔當”

48 『제례등록』(K2-4808), 병자년(1696, 숙종 22) 4월 17일.

山<sup>49</sup>, 임천(林川)[嘉林]<sup>50</sup>, 홍주, 청산<sup>51</sup>, 옥천(沃川)<sup>52</sup>, 해미(海美)<sup>53</sup>, 면천<sup>54</sup>, 대안, 석성<sup>55</sup>, 홍산(鴻山)<sup>56</sup>, 직산(稷山), 온양(溫陽), 영동(永同) 연산(連山), 충주(忠州), 신창(新昌) 등 여러 곳이었다.

이렇게 제주도에서 진상한 흑우를 한양으로 곧바로 보내지 않고 지방 여러 고을에 분양(分養)하는 것은 희생을 관리하고 공급하는 중앙 관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제향 때에 맞추어 흑우를 최상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목장을 비롯하여 사료와 이를 관리하는 목자 등이 필요하였다. 지방에 흑우를 분양하는 것은 사육의 제반 비용을 해당 고을에 부가하는 것이다. 또 한편, 여러 고을에 분산시키는 것은 우역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었다.

이렇게 분산되어 일정 기간 양육을 받은 흑우는 마침내 한양의 전생서로 옮겨졌다.<sup>57</sup> 전생서에서 기르는 흑우의 수는 대략 30마리 이내였다. 전생서는 남산 바깥쪽 용산 부근에 있었던 관서인데 제향에 소용되는 소와 양, 돼지를 최종적으로 관리하여 향소(享所)에 공계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황윤석의 『이재난고』에 정조대의 전생서 모습이 나온다. 이에 의하면 전생서 관청에는 목장이 있었는데 서장(西場)에 소가 있고, 남장(南場)에 양이 있었다. 그 바깥 서남쪽에 돼지가 있었다. 흑우는 서장 13칸에 각각 2마리씩 있었고, 남쪽 1칸에 1마리, 뜰 계단 아래 2마리가 있어 전체 29마리였다고

49 『烏山文牒』, 영조 36년(1760) 5월 18일(『각사등록』).

50 『嘉林報章』, 영조 14년(1738) 7월 일(『각사등록』).

51 『일성록』 정조 3년 기해(1779) 1월 29일(갑인).

52 『沃川邑誌』(규장각 소장, 규10764) 「옥천군읍사례」 「私募屬」.

53 『海美縣事例』(『호서읍지』, 규장각 소장, 규10767).

54 『沔川邑誌』(『호서읍지』).

55 『石城邑事例』(『호서읍지』).

56 『鴻山縣誌』(『호서읍지』).

57 『승정원일기』 정조 7년 10월 9일(정묘).

한다. 그 외 북쪽 1칸에 황우 1마리가 있었다. 남장에 양은 54마리가 있었고, 돼지는 410마리였다고 한다. 전생서는 여화도(汝火島, 여의도)에 양을 기르는 목장이 별도로 있었고, 또 관둔(官屯)이 이곳에 있어서 청근(菁根)을 생산하여 전생서 관원에게 공급하였다. 여의도 위쪽에 기사도(碁子島)에서는 생추(生蠶)가 생산되었다.<sup>58</sup> 그러나 소를 키우는 목장은 별도로 설치하지 않았다.

## V. 우역(牛疫)의 성행과 대응

### 1. 안면도 목장의 설치와 폐지

제주도에서 전생서까지 흑우의 이동은 꽤 먼 거리이다. 더욱이 제주도에서 육지로 나가기 위해 바다를 건너는 일은 매우 위험하였다. 실제 사고도 자주 발생하였다. 이런 난관을 이기고 육지로 나아가더라도 남도에서 한양까지의 수송 역시 쉽지 않았다. 다행인 것은 충청도 지역에서 기력을 회복한 후에 한양으로 전송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로나 육로의 수송보다 흑우에게 치명적인 위협은 우역의 발생이었다.

1682년(숙종 8) 10월부터 1683년(숙종 9) 4월까지 우역이 치성하여 국둔에서 기르던 소 386마리 가운데 207마리가 죽었다. 사둔의 소 중에서는 12,214마리나 죽었다. 이런 상황으로 제주도에서는 순색의 소는 말할 것도 없고 흠이 없는 소마저도 구하기 어려웠다.<sup>59</sup> 그리하여 중앙에 봉진해야 할 20마리를 채우지 못하고 15마리만 겨우 올려 보냈다. 그러나 흑우를 실은 배가

58 노혜경(2008), 앞의 논문, 165쪽.

59 『제등록』(K2-2549), 을축년(1683, 숙종 9) 윤6월 10일.

강진 근처에서 침몰하여 5마리만 겨우 살렸다.<sup>60</sup>

당시 우역은 제주도만의 일이 아니었다. 육지에서는 곳곳에서 우역이 번졌다. 도회소나 분양받은 곳, 그리고 전생서 등 어느 곳이나 안전한 곳이 없었다.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소들을 안전한 곳에 분산시켜야 했다. 하지만 먼 곳의 소들은 이동 중에 여러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비책 중 하나가 서울에 가까운 경기지역 정도에 흑우를 기르는 목장을 설치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노력은 숙종대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1679년(숙종 5) 6월에 정부는 사복시(司僕寺)로 하여금 호남 목장 중에서 사육하는 소를 찾아서 경기지역으로 올려보낼 것을 지시하였다.<sup>61</sup> 이에 따라 사복시는 거제의 가좌도와 순천의 백야곶에서 암소와 수소 40여 마리를 취하여 올려보냈다. 하지만 당시 경기지역 섬 중에 소를 키울 적합한 곳이 없었다. 강화를 제외하면 대부도와 영종도인데 대부도에는 산마(山馬)를 기르는 곳이고, 영종도는 모민(募民)을 위한 곳으로 삼아서 이전에 있던 우마를 나오게 하는 중이었다. 그리하여 전생서에 양과 염소의 목장으로 사용하는 여화(汝火, 여의도)와 울도(栗島)에 보내는 것도 생각하였지만 목책을 설치하고 목자(牧子)를 두는 것이 큰일이었다. 결국 겨울 동안에만 영종도에 흑우를 임시로 두었다가 다시 내려보냈다.<sup>62</sup>

1691년(숙종 17)에도 중앙 정부는 서울 인근의 섬에서 흑우를 키우고자 하였다. 당시 우역이 성하여 제주도에서 올라온 흑우들을 호서 여러 지역에 분양하는데 그들이 거의 모두 치폐할 지경이었다. 이에 급박하게 민간에서 기른 흑우를 사들여 제향에 충당하였다. 그리고 소들을 서울 가까운 곳에서

60 『제등록』(K2-2549), 갑자년(1684, 숙종 10) 2월 13일.

61 『제등록』(K2-2549), 기미년(1679, 숙종 5) 6월 4일.

62 『제등록』(K2-2549), 기미년(1679, 숙종 5) 11월 2일.



생산하여 기르는 방식을 모색하였다.<sup>63</sup> 그러나 예조는 중앙 관서에서 소를 기르는 것을 난감해하였다. 목양할 땅도 없을 뿐 아니라 목축을 담당할 관리자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가까운 곳의 사복시 목장 중에서 택하여 번식하고 키울 것을 지시하였다.<sup>64</sup> 사복시에서는 한양 인근에 소를 방목할 수 있는 곳으로 인천 덕적도(德積島)와 토야곶(土也串)을 추천하였다.<sup>65</sup> 그러나 예조에서 간심한 결과 이 지역은 광활하지만 돌산이라 초목이 무성하지 않고 샘물 또한 적어 목양지로 부적절하여 포기하였다.<sup>66</sup>

한편, 1691년(숙종 17)에 우역이 심하였는데 거제 칠천도가 큰 타격을 입었다. 그 해 1년 동안 칠천도에서 죽은 흑우의 수가 175수였다.<sup>67</sup> 여기서 살아남은 흑우들은 다른 곳으로 보내도록 하였다.<sup>68</sup> 이런 가운데 새로운 목축지로 주목받은 곳이 충청도 안면도였다. 이곳은 배를 만드는 나무를 기르는 곳으로 주변이 광활하고 물과 풀이 풍족한 곳이었다.<sup>69</sup> 이에 서산(瑞山)에 속한 마당기(麻堂基)와 태안에 속한 창기(倉基) 두 곳을 택하여 목장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곳은 넓고 수목이 적은 반면 물과 풀은 풍성하여 방목하기 좋았다.<sup>70</sup> 이에 1692년(숙종 18) 10월 20일에 흑우 12마리를 안면도로 보냈다.<sup>71</sup>

63 『승정원일기』 숙종 18년 2월 8일(무자).

64 『승정원일기』 숙종 18년 4월 3일(임오).

65 『승정원일기』 숙종 18년 4월 11일(경인); 『승정원일기』 숙종 18년 4월 11일(경인).

66 『승정원일기』 숙종 18년 4월 26일(을사).

67 『제례등록』(K2-4808), 갑술년(1694, 숙종 20) 2월 10일. 당시 칠천도에서는 1740년과 1741년에 치사한 175마리의 소 가죽을 팔아서 번상하는 것이 56마리에 그쳤다. 나머지 번상이 불가능하여 경상도 접마 별감 훈련주부 이분국이 탕척을 청하여 허락을 받았다.

68 『제등록』(K2-2549), 신미년(1691, 숙종 17) 1월 6일.

69 『승정원일기』 숙종 18년 5월 6일(을묘).

70 『승정원일기』 숙종 18년 6월 7일(을유).

71 『제등록』(K2-2549), 임신(1692, 숙종 18) 10월 14일, 『승정원일기』 숙종 18년 10월 20일(을미).

그러나 안면도 목장은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였다. 목자들의 생계를 위해 관에서는 안면도에 나무를 베어내고 경작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자 도민들은 그곳의 오랜 나무들을 베어 집을 짓고 또한 숲을 만드는 데에 이용하였다. 흑우의 수가 늘어나고, 목자들과 자녀들이 늘어나면 섬의 나무가 다 없어질 지경에 이를 것이란 걱정이 생겼다. 이에 근방의 다른 섬으로 흑우를 옮기기로 하였지만<sup>72</sup> 대부분 사복시의 목장이거나 각 아문의 공한지여서 마땅한 곳이 없었다. 결국 안면도에 있던 흑우를 모두 거제 칠천도로 다시 돌려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sup>73</sup> 이렇게 한양에서 가까운 곳에 새로운 목장을 마련하려 했던 정부의 노력은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 2. 공인(貢人) 분양과 무역

우역이 돌 때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적절히 분산시키는 것이 최선책이다. 호서지역에 분산시켜 목양하는 것은 방역에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이들이 다시 전생서에 모이면 함께 있게 된다. 이들을 우역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희생 공급에 매우 중요하였다.

추향대제가 단지 수순(數旬) 후로 다가왔으니 사태가 매우 급한 지경입니다. 이에 호서 각읍에서 분양하는 소 10여 마리를 급히 올려보내라는 관문을 호영(胡營)에 이미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소가 오면 다시 훈염(薰染)될 것이니 진실로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의론에 의하면 어떤 이들은 남대문 밖에 충융청 빈 관아가 있으니 이곳으로 옮기는 것이 좋다고 하며, 어떤 이들은

72 『승정원일기』 숙종 20년 7월 13일(기묘).

73 『제례등록』(K2-4808), 갑술년(1694, 숙종 20) 8월 7일.

인근 지역의 여러 섬으로 옮기되 수초가 있는 곳이면 편할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가까운 경기 지역 여러 고을에 분산시켰다가 사용할 때에 취용한다면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하며, 또 어떤 이들은 공인(貢人)에게 나누어 주어 그들로 각자 기르게 한다면 전염의 근심이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공인에게 나누어 주어 그들로 하여금 각자 한 마리씩 전생서에서 기르게 한다면 편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희생의 일이 매우 중요하기에 이와 같이 번거롭게 양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sup>74</sup>

위 인용문은 1747년(영조 23) 6월에 당시 예조판서이자 전생서 제조였던 권적(權適)이 아뢴 내용이다. 당시 우역이 매우 성하여 전생서에서 키우던 희우(犧牛)들을 호조의 여러 관청에 분산시켰지만 제대로 구제하지 못하여 30마리의 흑우 중에서 남은 것이 한 마리뿐인데 이것마저도 전염병이 걸려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다. 이에 호서의 분양 흑우 10여 마리를 올려보내도록 호영에 관문을 보냈지만 이들 역시 도착하면 또다시 전염병에 걸릴 가능성이 많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크게 4가지 안이 제기되었다. 대부분은 제향 전까지 흑우를 어디에 분산시켜 둘 것인가라는 문제였다. 남대문 밖 빈 관아 건물, 인근 섬, 경기 지역 여러 고을, 그리고 공인(貢人) 등에게 맡기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영조는 전생서에서 흑우를 기르는 것이 『주례』에 “국문에 매어둔다[繫于門]”는 뜻이라며 여러 곳에 분산시키는 것을 반대하였다.<sup>75</sup> 그러나 공인에게 분급하여 구료(救療)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에

74 『승정원일기』 영조 23년 6월 5일(갑자).

75 “繫于門”은 『周禮』 「地官·充人」에 나오는 구절이다. 충인(充人)은 제사에 사용할 희생을 매어 기르는 일을 맡는다. 영조는 이 구절을 통하여 희생을 도성에 가까운 곳에서 일정 기간 목양하는 정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전생서의 소들을 공인에게 분급하여 개별적으로 기르게 하였다. 기르는 소가 치사하는 경우 공인에게 징대(徵代)하던 폐단도 제거하였다. 이렇게 전생서의 흑우를 공인에게 임시로 맡겨 기르게 한 사례는 이후에도 계속 등장하였다.<sup>76</sup> 정조대 후반인 1796년, 1797년, 1799년 우역 발생으로 전생서 흑우의 폐사가 늘어나자 공인에게 분배하여 기르게 하였다.<sup>77</sup>

한편, 1748(영조 24)년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 그해 9월 전생서에 32마리가 있었는데 우역으로 죽은 것이 25마리나 되었다. 나머지 7수를 공인에게 나누어 기르게 하였는데 그 중에 반 이상이 병에 걸릴 지경이었다. 이에 예조에서는 급히 경사(京司)로 하여금 흑우를 무역해서 봉진할 것을 청하였다.<sup>78</sup>

흑우를 시장에서 구매하는 것은 이전에도 자주 있었다. 특히 숙종대에 우역이 발생하여 전생서 흑우가 치폐할 경우 흑우를 구매하는 방법으로 위기를 타개하였다. 1680년(숙종 5) 우역으로 전생서 소들이 죽어 제향에 소용할 수가 부족하자 여름과 겨울 두 차례나 7마리씩 사서 근기 지역에서 유양(留養)하였다.<sup>79</sup> 그러나 영조는 구매를 통한 희생의 공급에 부정적이었다.

우역이 발생하였을 때에 서울에서 흑우를 무역(貿易)하는 것은 사세(事勢) 때문이다. 그러나 제향은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한데 이것은 “시장에서 산 술이나 육포(沽酒市脯)”<sup>80</sup> 같으므로 종래 미안하다. 또한 한번 이 길을 터놓으면 훗날의 폐단이 될 것이다.<sup>81</sup>

76 『승정원일기』 영조 37년 9월 16일(신해).

77 『승정원일기』 정조 20년 4월 20일(을미); 정조21년 1월 23일(갑자); 정조 23년 3월 16일(갑술).

78 『승정원일기』 영조 24년 9월 22일(계유).

79 『제등록』(K2-2549) 기미년(1679, 숙종 5) 11월 13일.

80 “沽酒市脯”는 『논어』 「향당」에 나오는 “沽酒市脯不食”을 가리킨다. 공자는 시장에서 파는 술과 포를 사먹지 않았다는 뜻이다.

영조는 제향에 쓸 희생, 특히 선왕의 제향에 사용할 흑우를 시장에서 조달하는 것에 부정적이었다. 그리하여 제주도에서 흑우의 진상을 다시 한번 재촉하고, 전생서에 남아있는 소들을 최대한 잘 먹이기로 하였다.

그러나 그해 8월에 전생서 흑우 20여 마리가 폐사하였고 나머지도 곧 살 가망이 없으므로 결국 흑우 5마리를 무역하기로 하였다.<sup>82</sup> 1749년(영조 25)에도 4마리를 무역하였다.<sup>83</sup> 1762년(영조 38), 1765년(영조 41)에도 무역에 의존하였다.<sup>84</sup> 이러한 무역은 1890년대에도 자주 등장하였다. 고종대 전생서의 흑우 보유량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었고 1880년대(고종 17)에는 70마리까지 늘어난다. 그러나 1891년에 우역이 치성하자 경상(京商)에게 흑우 4마리를 무역하여 봉진하게 하였다.<sup>85</sup> 그리고 1892년(고종 29), 1893년(고종 30), 1894년(고종 31)에 연이어 흑우를 무역하여 충당하였다.

## VI. 제향의 공급

### 1. 희생의 점검

종묘 제향 때가 되면 전생서에서 살을 찌운 흑우를 끌고 향소로 나아갔다. 희생으로 사용하는 소를 끌고 갈 때에는 이례(吏隸)들이 도와주지만 코뚜레를 하지 않아 다루기가 쉽지 않았다.<sup>86</sup> 전생서 관원이 종묘에 이르러 희생을

81 『승정원일기』 영조 25년 1월 11일(경신).

82 『승정원일기』 영조 25년 8월 23일(기해).

83 『승정원일기』 영조 25년 12월 11일(을유).

84 『승정원일기』 영조 38년 11월 19일(정축); 『승정원일기』 영조 41년 4월 4일(기유).

85 『승정원일기』 고종 28년 10월 1일(임술).

86 전생서에서 제향이 있는 단묘까지 희생을 옮길 때는 견부군(牽負軍)을 이용하였다. 희생의 수대로 견부군을 차출하여 옮기도록 하였다(『제례등록』 K2-2549, 계해).

끌고 가는 곳은 종묘 정전의 동문 밖이다. 여기는 제물을 준비하는 전사청(典祀廳)의 앞쪽이며, 희생을 잠시 묶어두는 생방(牲榜)이 희생의 종류별로 있다. 희생은 곧바로 도살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희생에 적합한지를 살펴보는 데 이를 성생의(省牲儀)라고 한다. 『국조오례의』에 의하면 성생의 주관자는 종헌관이었다. 그러나 영조대에 이르러 국왕이 성생의를 직접 주관하는 의식이 새로 만들어졌다. 1745년(영조 21) 4월 7일에 ‘친림성생기(親臨省牲器)’ 의식을 처음으로 거행하였다. 이것은 신하들의 제사 준비 상태를 국왕이 직접 점검하겠다는 뜻이었다.

장생령(掌牲令)이 희생을 이끌고 동쪽으로 조금 나와 손을 들어 “살지다[膺]”고 아뢰고 자리로 돌아가면 여러 대축이 서쪽을 향해 한 바퀴 돌면서 희생을 살피고 손을 들어 “충실하다[忠]”고 고하고 모두 자리로 돌아갔다. 그러나 장생령과 대축의 판단과 달리 영조는 돼지는 살렸지만 소는 그렇지 못한테 “충실하다”라고 말하였다며 해당 헌관을 파직시키고, 예조의 당상과, 해당 관서의 제조(提調)를 삭직(削職)하고, 살졌다고 고한 장생령(掌牲令)을 임금을 속인 죄로 도배(島配)시켰다.

국왕이 제향의 준비 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해당 관원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영조는 희생의 체구가 작은 것은 해당 읍의 과실이고, 그것을 살찌우지 못한 것은 전생서의 책임이라며 해당 관서의 책무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희생에 대한 간품을 예조의 당상이 전생서(典牲署)의 제조와 함께 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희생의 점검은 영조대 특징이었다. 영조는 친림성생의(親臨省牲儀)를 시행하기 이전부터 희생의 상태에 관심을 보였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흑우는 제주도, 은진을 비롯한 호서 지역, 전생서 등을 거치게 된다. 숙종대

---

6월 19일).

까지만 하더라도 희생의 상태를 점검하여 각 지역의 관리를 처벌하지 하지 않았다. 그러나 1733년(영조 9)에 전생서 제조를 맡고 있던 동지사(同知事) 윤유(尹游, 1674-1737)가 흑우를 분양받아 키우는 고을의 수령에게 감색(監色)의 책임을 지울 것을 청하였다.<sup>87</sup> 영조는 그의 의견에 대해 자신이 바라던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찬성하였다.

그리고 1741년(영조 17) 4월에는 불시에 사관(史官)을 보내어 전생서 희생의 상태를 점검하라고 명하기도 하였다. 당시 전생서에는 흑우 19마리, 황우 1마리, 양 20마리, 염소(羔) 11마리, 돼지 약 280마리가 있었는데 소의 경우 대부분 여우고 말랐으며 그중에 겨우 7마리만 조금 나은 편이었다. 이러한 상황에 영조는 경전에 희생을 국왕이 직접 살필 만큼 중요한 것임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해조에서 사료를 방료(放料)하는 것이 적지 않음에도 희생이 비쩍 마르고 체구가 작은 것은 관원들이 제대로 살피지 않고, 하리들이 진심으로 위양(喂養)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담당자들을 치죄하였다.<sup>88</sup> 이러한 희생 점검의 연속으로 1745년에는 제향 전에 국왕이 직접 자리에서 나아가 희생을 살피는 의식을 시행함으로써 해당 관원들을 통제하였다. 이러한 국왕의 관심은 흑우를 목양하여 올려보내는 제주도과 이를 받아 키우는 지방의 담당관, 그리고 전생서 관원을 긴장시켰다.

## 2. 제향 속 흑우

종묘 정전의 동문 밖에서 희생의 상태를 살피는 의식이 끝나면 희생은 곧바로 전사청의 재살청(宰殺廳)으로 끌고가서 도살하였다. 희생을 도살할 때에는 ‘난도(鸞刀)’라는 칼을 사용하였다. 원래 난도는 칼끝에 두 개의

87 『승정원일기』 영조 9년 9월 6일(갑신).

88 『승정원일기』 영조 17년 4월 5일(기해).

방울을 달고, 손잡이 쪽 고리에 세 개의 방울을 달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5개의 방울은 궁, 상, 각, 치, 우의 5음을 내어 절도와 조화를 얻은 후에 도살하기 위한 것이다.

도살된 흑우가 제상에 진상되는 모습을 진설도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2의 오향친제설찬도(五享親祭設饌圖)는 「종묘친제규제도설병풍(宗廟親祭規制圖說屏風)」 중 일부이다.<sup>89</sup> 이 진설도는 선왕과 선후 각각 1위를 함께 모신 제상의 형식이다. 제사의 다양한 제기들 중에서 희생 흑우와 연관된 것은 등(甗), 형(鉶), 모혈반, 간료등, 생갑(牲匣) 등이다. 진설도의 제일 위쪽 두 줄 중에서 가운데 6개씩 있는 것이 등과 형의 국그릇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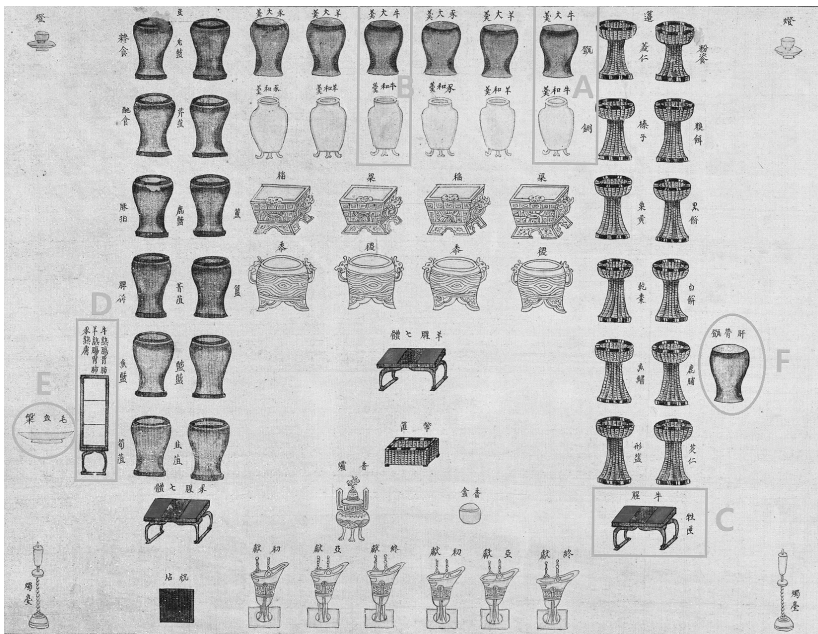


그림2- 오향친제설찬도(五享親祭設饌圖)(「宗廟親祭規制圖說屏風」의 제6폭 부분도), 국립고궁박물관

89 「宗廟親祭規制圖說屏風」,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유물번호 141.



왕과 왕후에게 각각 3개씩 주어진다. 흑색을 띠는 등은 질그릇이며 황색의 형은 유기그릇이다. 등과 형 위에는 각각 ‘우대갱(牛大羹)’, ‘우화갱(牛和羹)’이란 글자가 있다【A, B】. 대갱이란 조미료를 넣지 않고 육수만으로 맛을 낸 국이며 화갱은 조미료를 가지고 맛을 낸 국이다. 여기서는 흑우로 만든 두 종류의 국그릇인 썸이다.

그 아래 작은 상처럼 생긴 세 개의 제기가 ‘조(俎)’이다. 이것은 희생의 날고기를 담은 그릇이다. 오른편의 조에는 ‘우생(牛牲)’과 ‘생갑(牲匣)’이라는 표시가 있다【C】. 우생을 조에 담을 때 생갑이란 나무로 만든 상자에 넣어서 올렸기 때문에 생갑이란 표기가 있다. 양성과 시성은 각각 한 마리를 7부위로 나누어 조(俎)에 올려놓는다. 조에 올리는 부위는 양쪽 넓적다리[腓], 양쪽 어깨살[肩], 양쪽 겨드랑이살[脅]을 양쪽에 놓고 가운데에 등골살[脊]을 두는 형식이다. 반면 우생은 소 한 마리 전체를 통채 놓은 것이다. 그러나 실제에는 각실마다 한 마리의 소를 바친 것이 아니라 소 한 마리의 머리와 다리의 5조각을 각 신실에 하나씩 나누어 올렸다. 11실에 선왕을 모셨던 숙종대 종묘의 예를 흑우 3마리를 사용하여 제1실부터 각실에 머리, 머리, 뒷다리, 뒷다리, 뒷다리, 뒷다리, 뒷다리, 앞다리(前脚), 앞다리(前脚), 앞다리(前脚)의 순서로 올렸다. 즉, 머리, 뒷다리, 앞다리의 순서로 올렸다.

진설도 왼쪽에 세 칸으로 나누어진 상자 역시 조 위에 생갑을 올려놓은 모습이다【D】. 여기에는 소, 양, 돼지의 익힌 고기를 한 칸씩 넣었다. 그런데 앞의 것과 달리 익힌 고기[熟肉]를 올렸다. 그리고 생육(牲肉)의 생갑은 제향 전에 진설해두지만 이 숙육의 생갑은 제향 중 궤식(饋食)의 절차 때 올렸다. 세 고기를 하나씩 올렸으나 시간의 절약을 위해 정조 때 하나의 생갑에 칸을 나누어 한번에 올리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그 외 흑우의 털과 핏덩이를 담은 모혈반(毛血槃)【E】과 간(肝)과 울료(脰脛)

를 넣은 간료등(肝膾鬻)[F]이 있다. 이들은 제향 중 상향(上香)과 진폐례(奠幣禮)가 끝나면 제상에 올라갔다. 피덩이를 올리는 것은 희생을 죽였다는 것을 아뢰는 것이고 털을 올리는 것은 희생이 순색임을 보여주는 것이다.<sup>90</sup> 율료는 뼈 사이에 있는 기름 덩어리이다. 이들은 나중에 화로(火爐)에 태워 신에게 바쳤다.

## VII. 맺음말

---

바다를 사이에 두고 멀리 떨어진 섬이지만 조선시대 제주도는 중앙 정부와 관계를 가지며 육지와 교류하였다. 제주도 지방관으로 임명받은 관리, 유배당한 자, 상인들이 배를 건너 섬에 도착하고, 매달의 진상품인 과일, 수산물, 말, 소들이 과도를 넘어 육지로 향하였다. 이 가운데 흑우(黑牛)가 있었다. 현재 우리의 눈에 거의 보이지 않는 흑우는 조선시대 가장 귀한 소로서 제주도에서 한양의 종묘까지 운송되어 제물로 바쳐졌다.

본 연구는 종묘와 사직 제향에 바쳐지는 흑우의 존재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먼저 줄어들거나 폐지되던 많은 진상품과 달리 흑우의 진상 숫자가 계속 증가하는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태조와 4대의 선왕을 모신 오묘제(五廟制)로 시작한 종묘의 신실이 후대에 갈수록 증가하는 상황이 흑우의 수량을 증가시키는 일차 원인이었다. 이는 세대의 자연적인 증가가 아니라 불천지위의 세실(世室)이 수가 증가하면서 나타난 결과였다. 제주 흑우의 진공 수가 증가한 또 다른 요인은 친행 기우제의 증가였다. 현종대에서

---

90 『周禮注疏』「春官·司尊彝」. 『예기』「교특생」에서는 모혈을 올리는 것은 속이 충실하고 외양이 온전한 희생물[幽全之物]임을 고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영조대 사이에는 연속된 가뭄과 흉년이 자주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기우제의 횟수가 많아졌고, 그와 더불어 국왕이 직접 기우제를 거행하는 빈도수도 늘어났다. 남단에서만 거행하던 친행 기우제는 북교, 우사단에서도 거행하였다. 그리고 종묘와 사직에서도 국왕의 친행 기우제가 늘어났다. 이러한 국왕의 친행 기우제에는 소를 희생으로 사용함에 따라 흑우의 수요가 증가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조선후기 우역의 발생은 흑우의 사육과 우송을 어렵게 하였다. 이에 정부에서는 서울 인근의 경기 지역이나 충청도 지역에서 흑우를 키우려고 하였다. 그 대표적인 시도가 안면도의 목장 조성이었다. 그러나 삼림의 훼손으로 이 사업은 지속되지 못하였다. 이런 가운데 제향에 소용되는 흑우의 생산은 제주도와 거제도에 한정되었다. 거제도에는 5마리로 고정되었지만 제주도에서는 20마리에서 계속 증가하여 1867년(고종 4)에는 제주도 전체 흑우수가 47마리로 증가하였고, 대한제국기에는 49마리까지 이르렀다.

제주도 목장에서 흑우를 기르던 곳은 제주목의 일소장, 육소장, 정의현의 십소장, 대정현의 모동장, 가파도 등이었다. 지역별로 흑우 진상 수효를 살펴보면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의 순서로 많았다. 철종대에는 제주목에 20마리, 정의현에 14마리, 대정현에 8마리였고, 1867년(고종 4)에는 제주목에 22마리, 대정군 10마리, 정의군 15마리였다. 이들 흑우는 제주목에 모아져 두 배로 나누어 육지로 운송되었다. 생후 3년이 지난 소들이 주로 진상되었다. 출송되는 시기는 상황에 따라 달랐지만 4월에 가장 많이 나타났다. 화북포에서 옮겨진 흑우들은 호남과 호서 지역에서 일정 정도 양육되었다가 서울의 전생서로 옮겨져 3개월 정도 있다가 제향에 바쳐졌다. 전생서관원이 제향 전날 종묘로 데려오면 상태를 점검받은 후 도살처로 옮겨졌다. 1745년(영조 21) 영조가 제정한 친림성생의(親臨省牲儀)는 국왕이 직접 희생

의 상태를 점검하는 의식이었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서 진상되는 소의 상태나 전생서에서 돌보는 정도가 더욱 섬세해졌다. 제향 때면 종묘는 하나의 도살장이 되었다. 3, 4마리의 소를 비롯하여 양과 염소가 도살되고 분해되었다. 흑우는 모혈(毛血)과 간료, 머리와 네 다리의 생고기, 숙육(熟肉)으로 구분되어 바쳐졌다. 이러한 흑우의 희생을 통해서 신에 대한 공궤의 정성이 드러나고 국왕과 백성의 기원이 흠향되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 미처 밝히지 못한 것 역시 많다. 종묘와 사직 제향에 흑우를 사용한 이유, 제주도에서 흑우를 진상하게 된 까닭, 호서 지역 흑우를 분양하는 고을과 분양 시기 등에 대해선 과제로 남겨둘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서도 연구 과정에서 계속해서 드는 의문은 흑우의 공급처를 왜 서울 인근 지역으로 옮기지 않을까라는 것이었다. 본문에서 밝힌 것처럼 경기 저역에 흑우 목장을 조성하려는 노력은 여러 번 시도되었지만 실패하였다. 그런 어려운 상황이라면 흑우를 황우로, 진상은 무역으로 바꿀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흑우의 희생을 고수하고 제주도에 충청도를 거쳐 전생서에 이르는 긴 여정을 포기하지 않았다. 황우보다 흑우가 태생적으로 희생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선택되었기 때문에 농우(農牛)와 구별된 성스런 희생으로 간주되었다. 그리고 시장(市場)의 무역을 억제하고 진상을 고수함으로써 국왕의 제사는 차별화될 수 있었다. 긴 여정에 서 있는 흑우는 제주도와 육지, 제주와 중앙, 그리고 백성과 국왕을 연결하는 국가 제향의 상징이었다.

## 참고문헌

### 1. 1차 자료

- 『各司膳錄』(규 15099) 『濟州啓錄』, (『각사등록19: 전라도편 2』, 국사편찬위원회, 1986).
- 『各司膳錄』(서울대학교 한국학규장각연구원 소장, 규 15099).
- 『景慕宮儀軌』(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K2-2410).
- 『國朝五禮序例』(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K2-2108).
- 『每事問』(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K2-2161).
- 『頤齋亂藁』(영인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2004).
- 『祭膳錄』(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K2-2459).
- 『祭禮膳錄』(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K2-4808).
- 『濟州大靜旌義邑誌』(서울대학교 한국학규장각연구원 규장각 소장, 규17436).
- 『濟州三邑上錢穀會計成冊』(서울대학교 한국학규장각연구원 소장, 규19381).
- 『濟州三邑上錢穀會計成冊』(서울대학교 한국학규장각연구원 소장, 규20359).
- 『濟州邑誌』(서울대학교 한국학규장각연구원 규장각 소장, 규10796).
- 『宗廟儀軌』(규장각 소장, 규14220).
- 『宗廟親祭規制圖說屏風』(국립고궁박물관소장, 유물번호 141).
- 『耽羅誌』(서울대학교 한국학규장각연구원 소장, 고 4798-1).
- 『耽羅巡歷圖』(영인본, 제주시청, 1994).
- 『通牒編案(1號)』(서울대학교 한국학규장각연구원 소장, 규20313).
- 『咸豐三年七月日 癸丑夏三朔 濟州三邑上錢穀會計成冊』(서울대학교 한국학규장각연구원 소장, 규20359).
- 『湖西邑誌』(서울대학교 한국학규장각연구원 소장, 규10767).
- 『訓令存案』(서울대학교 한국학규장각연구원 소장, 규19144).

### 2. 단행본

- 李煜, 『조선시대 재난과 국가의례』, 창비, 2009.
- \_\_\_\_, 『조선 왕실의 제향 공간: 정제와 속제의 변용』,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5.

### 3. 논문

김경옥, 「제주목장의 설치와 운영: 탐라지를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4-1, 2001, 43-81쪽.

남도영, 「조선시대 제주도 목장: 한국목축업 연구의 일단」. 『한국사연구』 4, 1969, 77-131쪽.

노혜경, 「18세기 전생서의 인적 구성과 기능」. 『고문서연구』 33, 2008, 159-188쪽.

李旭, 「18세기 제주의 진상제와 상품유통」. 『한국사연구』 186, 2019, 1-27쪽.

한형주, 「조선시대 국가 제사에서의 ‘희생’ 사용과 그 운영」. 『역사민속학』 52, 2017, 47-75쪽.

허원영, 『19세기 제주도의 호구와 부세운영』.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5).

## 국문초록

조선시대 국가 제사에 사용된 희생으로는 소, 양, 돼지가 있으며 이 중에서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에 사용되었던 흑우(黑牛)가 가장 중요시되었다. 본 연구는 조선시대 제주도에서 중앙 정부에 진상하였던 흑우(黑牛)의 현황과 관리, 그리고 제향 중 진설(陳設) 등을 고찰하였다. 먼저 조선후기로 갈수록 줄어들거나 폐지되는 다른 진상품과 달리 흑우의 진상은 그 수요가 늘었는데 그 원인을 두 가지에서 찾을 수 있었다. 5대의 선왕을 모신 오묘제(五廟制)로 시작한 종묘는 후대로 갈수록 제사 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흑우가 필요하였다. 이는 세대(世代)의 자연적인 증가만이 아니라 불천지위(不遷之位)가 늘어난 결과였다. 제주에 부가된 흑우의 수가 늘어난 또 다른 요인은 국왕의 친행(親行) 기우제 때문이었다. 한편, 조선후기 우역(牛疫)의 발생은 흑우의 사육(飼育)과 운송(運送)을 어렵게 하였다. 이에 정부에서는 서울 인근 지역에서 흑우를 키우려고 하였다. 그 대표적인 시도가 안면도(安眠島)에 흑우 목장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삼림의 훼손으로 이 사업은 지속되지 못하였다. 이런 가운데 제향에 소용되는 흑우의 생산은 제주도와 거제도에 한정되었다. 거제도에는 5마리로 고정되었지만 제주도에서는 20마리에서 계속 증가하여 1년에 진상하는 흑우의 수가 대한제국기에는 49마리까지 이르렀다.

제주도 흑우는 두 배로 나뉘어 육지로 운송되었다. 생후 3년이 지난 소들이 주로 진상되었다. 출송되는 시기는 상황에 따라 달랐지만 4월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육지로 옮겨진 흑우들은 충청도와 전라도에 나누어 일정 기간 사육되었다가 한양의 전생서(典牲署)로 옮겨졌다. 그리고 전생서에서 대략 3개월 정도 머문 후 제향에 바쳐졌다. 제향 하루 전날 종묘로 옮겨진 흑우는 상태를 점검받은 후 도살처로 옮겨졌다. 1745년(영조 21)에 영조는 국왕이 제향 전에 직접 희생의 상태를 살피는 의식을 제정하여 흑우의 사육에 큰 영향을 미쳤다. 도살된 흑우는 모혈(毛血)과 간료(肝膓), 머리와 네 다리의

생고기, 숙육(熟肉)으로 구분되어 제상(祭床)에 올려졌다. 이렇게 조선시대 흑우는 제주도에서부터 종묘까지 긴 여정을 거쳐 제상에 올랐으며, 거리와 재난, 제향의 횟수, 국왕의 개입 등에 의해 그 공급의 양상이 변화였다.

투고일 2020. 6. 22.

심사일 2020. 7. 22.

게재 확정일 2020. 7. 29.

주제어(keyword) 흑우(black cow), 진상(進上, tributes), 제주도(濟州島, Jeju Island), 종묘(Jong myo), 전생서(Jeonsaengseo), 희생제(sacrificial rites), 희생(offerings)



## Abstracts

### A Study on State Rituals and Offerings of Black Cows during the Late Joseon Dynasty

Lee, Wook

Cows, lambs, and pigs were used as offerings in state rituals during the Joseon dynasty. Black cows used at the Jongmyo (royal shrine) and Sajik (altar of land and grain) were considered to have the highest value among the offered animals. This study examined the state and management of the black cows, which were acquired from Jeju Island as tributes for the central government during the Joseon dynasty. This study further analyzed how the black cows were placed at the tables during the rituals. Unlike other tributes, which were reduced in quantity or discontinued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e number of black cow tributes increased by time for two reasons. First, Jongmyo, which initially commemorated five former kings, needed more black cows as the number of former kings increased. The rise in the demand was not only caused by the added number of generations but was also because of the rise in the number of permanent ancestral tablets that were not allowed to be moved. Second, the demand for the black cow from Jeju rose due to the king's rain rituals. The outbreak of cattle plague in the late Joseon dynasty made it difficult to raise and move the black cows. The government thus attempted to grow black cows in the regions closer to Seoul. The black cow farm in Anmyeondo Island was one of the government's most representative projects. The farm, however, did not last due to deforestation. The black cow used for ancestral rituals could thus only be produced in Jeju and Geoje Island. The number of cows raised in Geoje Island was fixed to five a year. However, in Jeju Island, the initial count of 20 continued to rise so that during the period of the Korean Empire, as many as 49 black cows were presented to the government as royal tributes every year.

The Jeju black cows were divided into two separate ships for delivery. Most cows were three-years-old or older. The time of shipment differed by circumstances, but the cows were most frequently shipped in April. The black cows shipped to the mainland were raised either in Chungcheong-do or Jeolla-do

for a limited time and were then moved to the Jeonsaengseo in Seoul. The cows spent approximately three months in Seoul before being used as sacrifices in rituals. The cows were moved to the Jongmyo the day before the ritual and were examined and moved to the slaughterhouse. In 1745 (Year 21 of King Yeongjo's reign), King Yeongjo established a new ceremony where the king examined the offerings before the ritual, which dramatically changed the rearing methods of the black cows. Once butchered, the black cow was disassembled into skin and blood, intestines, head, fresh leg meat, and boiled beef before being placed at the ritual table. The black cows went through a long journey from Jeju Island to the ritual table at Jongmyo during the Joseon dynasty. The supply of the black cow fluctuated depending on the distance of the journey, disasters, the number of rituals, and interventions from the king.